

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



광명시의회
GwangMyeong City Council

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

I

연수 개요

- 연수목적 : 지방자치 정책추진을 위한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를 위한 의원의 자질 함양과 외국의 도시개발, 지역문화, 복지, 킬러 콘텐츠, 활성화된 관광지 우수사례 등을 견학해 지역개발사업 및 정책 심사 시 반영코자 함.
- 연수자 : 이윤정 의원, 나상성 의원, 신흥섭 주무관
- 방문국 : 태국(방콕, 파타야)
- 기간 : 2017. 11. 09. ~ 11. 15. (5박 7일)
- 총예산 : 5,343천원(3명)
- 세부일정

일시	지역	시간	방문일정	비고
11.9(목) (1일차)	광명 인천 방콕	16:00 19:30 23:45	○ 광명시의회 출발 ○ 인천국제공항 출발 (제주항공 7C2203) ○ 방콕국제공항 도착	
11.10(금) (2일차)	방콕 파타야	전일	○ 새벽사원 탐방 ○ 왕궁, 헤메랄드사원, 수상가옥 탐방 ○ 방콕 국립박물관 방문 ○ 알카자쇼 관람	
11.11(토) (3일차)	파타야	전일	○ 락그아 마을 탐방 및 체험 ○ 야간 시티투어	
11.12(일) (4일차)	파타야	전일	○ 악어농장 체험 ○ 미니시암 탐방 ○ 데파짓 야시장	

11.13(월) (5일차)	파타야	전 일	○ 파타야시청 방문 ○ 농녹빌리지 관람 ○ 황금 절벽사원, 코끼리트레킹 체험
11.14(화) (6일차)	파타야 방 곡	전 일	○ 파인애플 농장 견학 ○ 무양보란(고대도시 민속촌) 탐방 ○ 방콕 아시아티크 체험
		02:00	○ 방콕 국제공항 출발 (제주항공 7C2206)
11.15(수) (7일차)	인 천 광 명	09:40 11:30	○ 인천국제공항 도착 ○ 광명시의회 도착 및 해산

II

연수국가 현황 및 내용

□ 태 국(Thailand)



- ◆ 국 명 : 타이 왕국
- ◆ 수 도 : 방콕
- ◆ 인 구 : 68,414,135명 (2017. 기준)
- ◆ 면 적 : 51만 4,000km²(한반도의 약 2.3배)
- ◆ 행정단위 : 76개 창왓과 6개의 지방
- ◆ 주요민족 : 타이족(85%), 화교(12%), 말레이족(2%), 기타(1%)
- ◆ 주요언어 : 타이어(공용어), 영어(상용어)
- ◆ 종 교 : 소승불교(90%), 이슬람교(6%)
기독교(2%), 기타(2%)
- ◆ G D P : 4,378억\$ (2017. 기준)
- ◆ 국가형태 : 입헌군주제
- ◆ 정부형태 : 내각책임제
- ◆ 의 회 : 양원제(상원 150명, 하원 500명)

□ 정치제도

- 정부형태 : 내각책임제
- 국가원수 : 마하 와치라롱꼰 국왕 (2016년 10월 13일 재위.)
- 정치제도의 특징
 - 태국의 내각은 총리 1명 및 35명 이하의 각료로 구성되며, 국왕이 임명한다.
 - 총리는 헌법상 국왕이 임명하고 하원의원만 임명 가능하다. 임명 후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며, 임기는 4년이다.
 - 헌법상 국회는 총리 임명에 대한 승인 표결권은 없으며, 임명 후 불신임 표결만 가능하다.

□ 정치변화

- 지난 1997년 9월 태국은 1932년 입헌 군주제로 바뀐 이래 17번째 헌법 개정을 단행했다.
-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이 금지되어 의원직을 버려야 입각이 가능하며 장관은 취임 전후에 각각 재산을 신고해야 하고 수상은 지역구출신 의원이어야 한다.
- 또, 200명의 상원의원도 종전의 임명에서 선출로 바뀌게 된다. 이에 따라 하원의원 500명 중 400명은 직접선거로, 100명은 전국적으로 5% 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대상으로 득표수에 비례해 배분하고 있다.
- 지방 분권을 촉진하려는 헌법 정신에도 불구하고 권한은 여전히 중앙 정부에 집중되어 있다.
- 약 100개에 이르는 지방 정부는 수입의 상당 부분을 판매세와

부동산세로 확보해야 하나 충분한 재정 자립도를 보이는 곳은
방콕뿐이다.

- 아울러,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, 사법부는 입법, 행정부와 분리, 독립 되어 있다. 또한, 대법원 판사의 임명권은 왕에게 있다.

□ 지방자치제도 개황

○ 지자체 종류

- 시자치단체(Municipality)
- 도자치단체(Provinci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)
- 면자치단체(Subdistrict Administrative Organization)
- 방콕도
- 팟타야특별시
 - ※ 도시지역에는 시자치단체(텃싸반, Municipality)
 - ※ 인구의 70%이상 거주하는 농촌지역에는 면자치단체
 - ※ 군은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일 뿐이며 자치단체가 아니며, 한국의 1961년 당시 읍·면자치제와 비슷한 형태이다. 또 도자치단체는 시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군과 subdistrict를 관할이며, 한국의 광역-기초간 계층제와 성격이 다르다.

□ 지방자치단체 종류

○ 시자치단체 (텃싸반, Municipality)

- 도시성격을 띤 지역의 자치단체
- 종류 : 텃싸반 나컨(시에 해당), 텃싸반 므엥(읍에 해당), 텃

싸반 땀본(면에 해당)

- 의회-집행부 형태이며, 지난 1999년부터 집행부 장이 시장이며, 주민 직선으로 선출한다.
- 도자치단체 (웅간버리한쑤언짱왓, Provinci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)
 - 도자치단체는 시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군과 군지부를 관할한다.
 - 의회-집행부 형태이며 집행부 장(Chief Executive)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나, 이와 별도로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는 도지사(governor)가 있으며, 실제 권한 및 위상에 있어 도지사가 더 우월한 실정이다.
- 면자치단체 (웅간버리한쑤언땀본, Subdistrict Administrative Organization)
 - 가장 작은 자치단체이자, 주민과 가장 밀접한 자치단체이다.
 - 지방행정의 근간, 농촌지역의 자치능력을 고려한 준자치적 성격이다.
 - ※ 의회-집행부 형태, 집행부 장(Chief Executive)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한다.
- 방콕도 (끄룽텡마하나콘, Bangkok)
 - 의회-시장(governor) 형태이며, 시장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한다.
- 팟타야 특별시 (므엥팟타야)
 - 미국식 의회-시정지배인(council-manager form) 제도를 도입한 독특한 자치단체이다.

III

주요 연수 결과

□ 방콕 왕궁 및 박물관

- 왕궁은 라마 1세부터 역대 국왕들이 살았던 왕궁으로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증개축을 하면서 왕궁의 규모가 커져 현재에 이른다.
- 짜끄리 왕조를 연 라마 1세가 랏따나꼬신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왕조의 번영을 비는 의미로 지었으며, 궁전과 집무실, 사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.
- 특히, 왓 프라깨우를 포함한 왕궁은 반바지나 민소매 옷차림으로는 출입할 수 없어 복장에 신경 써야 하며, 범종 모양의 프라씨 랏따나 쨌디 불탑과 경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프라몬뎀 등 다양한 형식의 건축물이 굉장히 흥미롭다.
- 또한, 최대한 자연친화적인 방법들로 건축물 및 유물들을 보존하려는 노력과 태국의 자국민 가이드만 왕궁을 안내할 수 있는 자국민 보호정책이 아주 인상적이다.



□ 알카자쇼

- 파타야에서 특색 있는 킬러콘텐츠로, 트랜스젠더들이 출연하는

것이 특징이다.

- 이 공연은 미스알카자선발대회에서 선발된 트랜스젠더를 무대에 세워 다양한 노래와 춤을 선보이며, 공연이 끝난 후에는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다.
- 자신들만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문화로 승화시켜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시만의 예술을 발굴해 문화 관광 콘텐츠로 승화시켜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.



□ 락그아(다문화) 마을

- 락그아 마을은 캄보디아, 라오스, 미얀마 등에서 이주해 살고 있는 작은 마을로, 대부분 마을사람들은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하루 300바트(한화 1만 59원)을 벌고 있다.
- 마을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 즐거움, 그리고 작은 것에 대해 행복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.
- 특히,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폐 페트병을 활용한 수경재배 시설은 태국의 기후를 생각한 마을사람들의 삶의 지혜가 녹아

있었다.



□ 농축 빌리지

- 꾸준히 개발하고 노력하는 정원으로 유명한 농축 빌리지는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열대 정원 식물원으로, 태국인들과 외국인들의 시선을 이끌기 위해 다양한 흥미거리를 찾아가하며, 교육, 세계적인 정원으로서 식물보호, 보존, 연구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.
- 파타야 현지인들은 이 지역을 파타야 줌티엔 사타힙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.



□ 파타야시청

- 파타야는 지난 1978년부터 특별 자치주로 통치되는 도시로, 시장에 의해 통치되는 구조이다. 팜본 농쁘루에와 나끌루아 그리고 후아이 야이 그리고 농 플라 라이 지역이 파타야의 행정 지역이며, 시라차, 램 차방 그리고 촌부리를 따라 위치한 동해안 산업 단지에 위치해 있다.
- 원래 파타야는 이름 없는 작은 어촌에 불과하던 곳이었었는데 지난 1961년 베트남전쟁 때 우타파오에 미국 공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병사들이 왕래하며 휴가를 즐기러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늘날 아시아 휴양지의 여왕이라 불릴 만큼 국제적인 휴양지가 됐다.
- 파타야로 이름 지어져 불리게 된 것은 이곳에 주둔하던 태국군 장성의 이름인 프라야 딱신과 그의 군대라는 뜻의 ‘툽프라야’로 불리기 시작한 후 ‘툽프라야’가 사람이 늘어나면서 파타야로 불리게 됐다.
- 현재 파타야시는 관광도시로서 골프장이 20여개소 및 트렌스젠더쇼, 매직쇼, 수족관, 수상시장, 무에타이체험, 각종 축제 등의 관광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, 관광지 개발에 대한 결정은 공청회를 통해 시의원들이 결정한다.
- 또 태국법으로 외국인 투자는 49%지분만 소유할 수 있으며 태국인이 51%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 가능해 파타야시에서는 외국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세미나와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있어 우리시도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을 유인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.



□ 무앙보란(고대도시 민속촌)

- 태국의 역사를 알려면 꼭 관람할 곳이 있다. 바로 무앙보란이다.
- 무앙보란은 ‘고대도시(Ancient City)’ 라는 뜻으로 타이의 국토 모양을 본뜬 광대한 부지에 완벽한 고증을 통해 실제에 가깝게 타이의 옛 도시를 재현해 놓은 테마공원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박물관이다.
- 힌두교와 불교의 사원, 고산족의 농가, 클롱 등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어 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게 해 놓았으며, 현재도 계속 수리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보존과 관리에는 배울점이 많다.
- 특히, 15세기 아유타야 왕조의 산페치 궁전의 4층 지붕이 매우 인상적이다.



□ 아시아티크

- 태국 방콕에서 대표적인 야시장을 구경하고 싶다면 아시아티크와 팻퐁야시장이 있다.
- 시암 제국의 영광을 재현한 항구 스타일의 야시장인 아시아티크는 파타야 데파짓 야시장과 다르게 대형 복합 쇼핑몰로 그중에 1,500여 개의 숍과 40여 개의 레스토랑들이 모여 있으며, 상점들이 크게 4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.
- 먼저 워터프론트 구역은 태국에서 가장 긴 강변길과 아름다운 차오프라야강의 야경을 즐길 수 있는 곳이며, 콘서트나 페스티벌 그리고 새해 카운트다운 행사 등이 열린다.
- 팩토리 구역은 트렌디하고 세련된 패션 쇼케이스 장소 및 다양한 디자인의 옷과 액세서리 샵들이 밀집한 태국 디자이너 감각을 만나 볼 수 있는 곳으로 오던 라이프 스타일에 초점을 맞춘 구역이다.
- 타운 스퀘어 구역은 태국과 서양의 라이프 스타일을 모두 만나 볼수 있는 곳으로 인터내셔널 다이닝, 스포츠 바 등이 다채로운 곳이며, 스포츠나 게임 그리고 신제품 런칭 등의 다양한 이벤트나 액티비티가 다채로운 구역이다.
- 차런크룽 구역은 조 루이스 레스토랑의 예술과 인형극 뿐만 아니라 칼립소 쇼, 무에타이 공연과 함께 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가 가장 잘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1,000여개의 수공예 제품, 홈 데코 등 샵이 밀집한 구역이다.
- 아울러, 아시아티크는 리노베이션 하는 동안 역사적으로 아주

중요한 유물 7개를 발견해 잘 보존해서 관광객들에게 이를 찾는 즐거움을 주기도 하며, 야시장이라는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.



- 현재 태국은 우리나라보다 낙후됐고, 못사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지만, 한때 우리나라가 롤 모델로 삼고 추구하던 나라이다. 또 6·25전쟁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군대를 파병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나라이다.
- 태국은 입헌군주제 국가라고 하지만 중대형 상가나 시내 곳곳의 입구에는 간판보다 더 큰 대형 국왕의 사진이 걸려있으며, 어느 곳이든 태국 국기가 걸려 있고 그 옆에는 국왕을 상징하는 깃발도 걸려 있다.
-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프랑스, 영국 등의 열강의 식민지 통치를 받지 않은 나라여서 인지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국왕에 충성심이 대단한 민족이라고 생각한다.
- 또한 크고 작은 수많은 사원들과 집집마다 있는 부처상이 있는 태국은 왕과 종교로서 안정적인 사회의 통합을 이끌어내고 있었다. 바로 이런 점들이 그들이 가난하지만 여유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지 않나 생각된다.
- 특히, 태국에는 왕궁 또는 사원을 방문했을 때 자국민 관광객가이드만 안내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해 자국민 보호 및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왜곡되지 않은 올바른 사실의 역사를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되어있다.
- 우리시도 이점을 받아들여 우리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정확히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지역 내 문화해설사가 외국 관광객을

안내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.

- 또, 태국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많은 문화재를 단지 문화유산만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지 않고 관광자원화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관광수입이 국가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관광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.
- 태국정부의 다양한 관광정책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수많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을 보면서 서울의 전형적인 베드타운에서 세계적 관광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시 또한 지역 자원을 면밀히 파악해 우리시 자원을 기초로 한 문화 콘텐츠 개발이 중·장기 광명시 관광산업을 이끌 킬러콘텐츠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.
- 아울러, 집단지성과 전문가의 복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.
- 마지막으로 태국은 국민들의 행복지수 조사에서 항상 상위권에 드는 나라이다. 이 곳 사람들은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현재 상황에 감사하고 자신의 삶에 순응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에 부럽기만 하다. 앞으로 광명시민의 애향심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.